

삼국시기 무덤외부시설의 우수성

백 용 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력사유적과 유물들은 해당 시기의 력사와 함께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실물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적재부이다. 삼국시기의 무덤외부시설들도 바로 우리 선조들의 정신적 및 물질적창조물의 하나로서 당시 우리 민족들의 강대한 위용과 높은 건축술을 보여주는 우수한 문화유산들중의 하나이다.

삼국시기 무덤외부시설의 우수성은 무엇보다도 무덤외부시설의 규모의 방대함과 내용의 풍부함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삼국시기의 무덤외부시설들중에는 무덤무지와 무덤주변구역의 방대한 규모를 보여주는 무덤들이 적지 않다.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였던 집안일대에서는 무덤무지 한변의 길이가 35m이상으로서 고구려국가의 강대한 위용과 높은 건축술을 보여주는 10여기의 대형돌각담무덤들이 알려졌다. 그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무덤인 장군무덤은 1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고구려의 우수한 무덤건축술을 자랑하며 원래의 모습그대로 거연히 솟아있다.

이 무덤은 현재 무덤무지 한변의 길이가 약 34m, 높이 13m이며 무덤외부시설들까지 포함하여 그 부지면적은 거의 1만 m^2 에 달한다.

태왕무덤, 립강무덤, 우산 2110호무덤, 칠성산 211호무덤, 천추무덤, 서대무덤들은 무덤무지 한변의 길이가 60m이상으로서 장군무덤보다 규모가 훨씬 크며 외부시설들을 포함한 부지면적이 매우 방대하다. 특히 태왕무덤의 외부시설들중의 하나인 《광개토왕릉비》는 높이 6.34m, 너비 1.43~1.9m, 글자수 1800여자로서 당시의 비석들가운데서 세계최대의 규모와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다.

《광개토왕릉비》는 비문의 내용을 보면 고구려왕들의 황제적지위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한다. 고구려사람들이 직접 글을 쓰고 새기여 세운 이 비석에는 동명왕을 천제의 아들, 황천의 아들로, 광개토왕을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으로 서술하고있으며 비문의 여러곳에서 대왕, 태왕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 천제(하늘과 땅을 모두 《지배》하는 신인《하늘임금》의 아들)를 대신하여 인간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천하의 최고권력자》를 가리키는것으로서 황제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것이다.

《삼국유사》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여러 옛 문헌기록들과 이웃나라의 문헌기록들인 《론형》, 《위서》들에서도 고구려시조 동명성왕을 《천제의 아들》로 묘사하였다.

이처럼 《광개토왕릉비》는 여러 문헌기록들과 더불어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최고주권자를 천제, 대왕, 태왕으로 부르면서 고구려를 황제국가, 독자적인 주권국가로 확고하게 인식하고있었음을 보여주는 우수한 물질적증거물로 된다.

삼국시기 고구려무덤들과 마찬가지로 무덤외부시설의 방대한 규모를 보여주는 무덤

들로서는 백제의 석천동 3호무덤과 4호무덤, 신라의 황남리 98호무덤과 155호무덤, 가야의 지산동 44호무덤과 45호무덤 등도 있다.

삼국시기의 무덤들은 달린무덤, 돌 및 담장시설, 제단시설, 못시설, 사원 등이 결합되어 하나의 크고 정연한 무덤구역을 형성하고있다. 특히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인 동명왕릉의 주변에는 달린무덤, 못, 건축지가 있어 하나의 방대한 무덤구역*을 형성하고있다.

* 《조선민족의 재부 고구려무덤》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5(2006)년 95~97페이지

동명왕릉주변의 구릉지대에는 동명왕릉과 거의 200~1 000m정도 사이를 두고 19기에 달하는 달린무덤들이 분포되어있다.

동명왕릉의 달린무덤들은 그 분포위치가 마치도 동명왕릉을 앞뒤로 옹위하고 서있는 듯 한 인상을 주고있다. 달린무덤들은 모두 돌칸흙무덤들이다. 이 무덤들가운데서 룡산리 1호무덤과 9호무덤들은 벽화가 그려진 높은 급의 무덤들로서 동명왕릉의 지위를 더욱 부각시켜준다고 말할수 있다.

동명왕릉의 서쪽 400m 되는 곳에는 《진주못》이라고 불리우는 제형의 못이 있다.

동명왕릉을 민간에서 《진주묘》라고 불렀고 이 못을 《동국여지승람》에서 《진주못》이라고 기록하고있는것만큼 왕릉과 못은 서로 밀접하게 련관된 유적들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동명왕릉에서 남쪽으로 120m가량 떨어진 곳의 나지막한 산기슭에는 큰 규모의 건축 유적이 있다. 이 건축터는 위치로 보아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인 동명왕릉과 깊은 관련이 있는 유적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 건축지의 총면적은 남북 132.8m, 동서 223m이며 그 중 확인된 건물터는 18개이고 회랑터는 10개이다.

이 유적에서는 기와, 벽돌 등의 유물들과 함께 《릉사》, 《정릉》 등의 글자가 새겨진 여러개의 질그릇조각들도 함께 알려졌다. 이것은 동명왕릉앞의 건축지가 바로 고구려시기의 정릉사터이며 그릇조각들에 새겨진 글자들을 통하여 이 건축지가 왕릉과 관련이 있는 유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에서는 시조왕숭배를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었고 동명왕릉을 동방의 대강국 고구려의 시조왕릉답게 웅장하고 품위있게 꾸리였으며 룡앞에 시조왕을 제사지내고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한 절간도 훌륭하게 건설하였던것이다.

이와 같이 무덤구역의 앞부분 또는 중심에 높은 급의 무덤을 배치하고 그 주변이나 뒤부분에 달린무덤들을 둔것 그리고 무덤의 앞부분에 큰 규모의 사원을 건설한것, 무덤구역의 한쪽옆에 못을 만들어놓은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무덤외부시설—룡원시설들이 크고 정연하게 축조된것은 해당 나라의 위용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특히 동방의 강국인 고구려와 같은 나라들은 강대국의 지위에 맞먹는 큰 규모의 무덤과 방대한 면적의 무덤구역을 가지고 정연한 형식의 무덤외부시설들을 갖추고있을수 있는것이다.

삼국시기 무덤외부시설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무덤축조에 반영된 우리 선조들의 높은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삼국시기의 무덤외부시설들은 당대 사회의 발전된 건축술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볼수 있게 한다.

높은 돌다루기기술과 건축학적재능을 소유한 우리 선조들은 무덤을 축조할 때 무덤무지자체증압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과정에 여러 형

래의 보호시설들을 갖추어놓았다.

삼국시기 우리 선조들은 무덤무지밑둘레에 큰 돌들을 빙 둘러놓거나 일정한 높이로 돌을 올려쌓는 방법, 무덤무지 네모서리를 돌출시키고 거기에 돌을 보강하는 방법, 무덤무지밑부분의 네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큰 돌들을 버티거나 박아서 세워놓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덤무지를 유지하고 견고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다.

운평리 2지구 35호무덤과 36호무덤, 5지구 3호무덤, 송암리 1지구 34호무덤을 비롯한 고구려초기 무기단돌각담무덤들과 백제의 석천동 5호무덤, 무녕왕무덤, 룡산리 동하무덤, 서상무덤, 등상무덤과 신라의 황남리 98호무덤과 155호무덤, 로서동 129호무덤, 인왕동 19호무덤, 미추왕무덤앞지구 3호무덤, 가야의 지산동 45호무덤과 44호무덤, 달서면무덤떼 50호무덤, 계성면 사리 A지구 1호무덤과 6호무덤 등 삼국시기 여러 무덤들은 무덤무지의 맨 밑에 큰 돌들을 놓거나 무덤무지밑둘레에 일정한 높이로 보호석을 돌려쌓아 무덤무지가 흘러내리는것을 방지하였다.*

*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 4호 25~28페이지

고구려의 집안 만보정 242호무덤과 백제의 가락동 5호무덤, 신라의 로서동 140호무덤의 경우를 보면 지형상 북쪽부분이 높고 남쪽부분이 낮기때문에 무덤무지의 중압이 아래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다. 이로부터 당시 사람들은 무덤무지의 남쪽부분에 돌들을 축조하거나 큰 돌을 버티여놓아 무덤무지를 안전하게 보존하였다.

돌각담무덤에서는 무덤무지가 모두 돌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돌무지의 자체무게로 인하여 무덤무지의 바닥평면과 아래부분의 네모서리들에 적지 않은 힘이 가해지게 된다. 이로부터 무덤무지를 견고하게 오래동안 보존하려면 네모서리를 돌출시켜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밖으로 내미는 힘을 견제하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네모서리돌출시설의 갯출새를 보면 우선 무덤무지의 모서리에 큰 돌을 우아래에 겹쳐놓은것이 있고 하나의 돌을 박아놓고 그우에 다시 큰 돌 여러개를 겹쳐놓은것도 있다. 또한 큰 돌을 모서리에 놓은 방법과는 달리 무덤위치의 지반조건이나 석채채취조건 등으로 하여 큰 돌을 쓰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우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서도 더 견고하게 해야 할 때에는 모서리의 바깥쪽으로 일정하게 더 넓은 면적에 돌을 깔아놓아서 무덤의 견고성을 둔것도 있다.

네모서리돌출시설의 가장 발전된 형태는 이 두가지 방법을 결합시킨것으로서 모서리부분의 면적을 넓게 정하여 힘받이면적을 넓히면서 동시에 큰 돌을 놓아 그 부분의 견고성을 한층 더 높인것이다.

기단이 있는 방대한 규모의 무덤들에서는 무덤무지의 중압이 제일 많이 쏠리는 맨 아래기단에 보다 크고 많은 수의 기단보호석들을 배치하고 밑으로부터 두번째 기단에는 무덤무지의 중압이 얼마간 작아지는데 맞게 크기가 약간 작고 적은 개수의 기단보호석들을 버티여놓았다. 이것은 무덤축조에서 무덤무지의 중압을 정확히 타산하여 기단보호석의 크기와 개수를 정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고령묘자 1호무덤, 천추무덤, 칠성산 871호무덤, 태왕무덤, 장군무덤, 백제의 석천동 4호무덤 등 삼국시기의 여러 무덤들에서는 무덤무지의 규모와 높이, 내려누르는 힘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기단보호석의 크기와 개수, 매 보호석들사이의 간격

등을 정확히 고려하였음을 찾아볼수 있다.

삼국시기의 무덤들에는 무덤무지를 견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배수시설도 정연하게 갖추어져있었다.

삼국시기무덤의 배수시설들은 무덤무지와 그 주변에 고이는 비물들을 제때에 빼내기 위한 보호시설로서 여러가지 형태를 갖추고있었다.

배수시설의 형태를 보면 무덤무지의 네 둘레에 일정한 폭으로 돌을 깔거나 무덤무지면에 수직되게 구덩이를 길게 파고 거기에 돌을 채워 비물이 쉽게 빠져나갈수 있게 한것, 무덤무지의 밑부분과 주변에 암거형식으로 지하물길을 내고 옷뚜껑을 씌워 비물을 바깥쪽으로 빼낼수 있게 만든것, 무덤주변구역의 넓은 면적에 높은데서 낮은데로 비물이 쉽게 빠져나갈수 있도록 경사면을 따라 강자갈을 깔아놓은것 등이 있다.

고구려의 장군무덤, 태왕무덤, 칠성산 871호무덤, 우산 2110호무덤, 마선구 626호무덤, 동명왕릉과 백제의 명화동무덤, 룡산리동하무덤 등 삼국시기의 여러 무덤들에서는 무덤무지의 구조형식과 지형상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배수시설들을 만들어놓음으로써 무덤을 보다 오래동안 견고하게 보존하도록 하였다.*

*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주체100(2011)년 4호 5~8페이지

삼국시기 무덤의 무덤무지우시설을 통하여서도 당시 사람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일부 무덤의 무덤무지우에서는 수기와, 암기와, 기와막새, 벽돌 등 여러가지 건축재료들이 알려졌다. 무덤무지우에서 알려진 이러한 건축재료들은 무덤무지우에 일정한 시설이 존재하고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거의나 파괴된 상태로 알려졌기때문에 그 구체적인 형태를 잘 알수 없다.

삼국시기 고구려의 장군무덤과 백제의 석천동 4호무덤은 무덤의 무덤무지우시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겠는가를 보여주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장군무덤은 커다란 화강석들을 정교하게 다듬어 계단식으로 쌓아올려 만든 계단돌칸무덤이다. 이 무덤은 밑면 한변의 길이가 34m인 정방형의 평면구조를 가지고있다. 무덤의 높이는 13m이다. 계단은 모두 7단으로 되어있으며 첫번째 계단은 네겹으로 쌓고 두번째 계단부터는 세겹으로 쌓았다. 계단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 길이와 너비, 높이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맨 옷단의 길이, 너비는 각각 13.5~13.8m로서 첫번째 계단 길이, 너비의 절반도 안되게 축소되였다.

매 계단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가는 정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단옷면의 길이, 너비는 첫번째 단 29.5~31m, 두번째 단 26.2~27.2m, 세번째 단 23.7~24.7m, 네번째 단 21.35~22m, 다섯번째 단 18.85~19.4m, 여섯번째 단 16.2~16.5m, 일곱번째 단 13.5~13.8m이며 그 높이는 첫번째 단 3m, 두번째 단 1.6~1.7m, 세번째 단 1.5~1.6m, 네번째 단 1.4~1.5m, 다섯번째 단 1.35~1.4m, 여섯번째 단 1.25~1.35m, 일곱번째 단 1.1~1.2m이다.

무덤무지 맨 아래단의 기단보호석밑부분과 매 단의 끝모서리점을 연결하여보면 약 45~50° 정도의 경사선을 얻게 된다. 이 두개의 경사선들이 합쳐지는 꼭두점의 높이는 무덤무지 맨 아래단으로부터는 19m정도, 무덤무지꼭대기에서부터는 6m가량 된다.

무덤무지 맨 옷단(일곱번째 단)의 면적은 대략 180m^2 정도이며 무덤무지우에서는 직경 22cm, 17.6cm, 16cm인 수기와막새들이 알려졌다. 이로부터 바닥면적 180m^2 , 높이 6m의 공간에 기와를 얹은 어떤 시설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번째 단의 네 둘레에는 가공한 돌들이 빙 둘러 깔려있고 그 변두리에 직경 9~15cm, 길이 약 12cm 정도의 구멍들이 배치되어 있다. 장군무덤 주변의 흙무지속에서는 무덤무지웃부분의 구멍들과 결부시켜볼 수 있는 쇠사슬련결고리가 알려졌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장군무덤의 무덤무지우에는 큰 규모의 화강석들을 정교하게 다듬어 7층의 계단을 올려쌓고 그우의 중심부분에 수기와, 암기와, 막새가 달린 기와들로 장식된 일정한 형태의 시설물을 축조하였으며 주위에 빙 둘러 기발들을 세우고 쇠사슬련결고리를 설치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백제의 석천동 4호무덤은 지대를 고르고 자갈을 깔아 무덤구역을 만든 다음 방형의 평면에 3층의 기단을 가진 무덤무지를 쌓은 기단돌각담무덤이다. 파괴가 심하여 무덤무지의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그 맨 아래부분 한번의 길이가 24m 정도이며 현존높이는 2.24m이다.

무덤무지의 동쪽 첫번째 기단중앙에 길이 1.77m, 너비 0.8m, 두께 0.19m의 거의 장방형의 판석을 놓았는데 이와 같은 장방형의 판석은 북쪽기단면의 중앙에도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원래 기단부 네면의 중앙에 이러한 장방형의 판석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덤무지의 꼭대기는 평평한 방대형으로서 작은 자갈과 점토, 그우에는 부식토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군무덤에서 알려진 자갈과 석회 및 흙을 섞은 구조물의 성격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보아진다.

이 무덤에서는 무덤무지 남쪽무덤길의 막음돌사이에서 길이 21cm, 너비 16cm, 두께 6cm의 청회색 무늬없는 벽돌이 여러장 발굴되었는데 이와 비슷한 벽돌은 태왕무덤, 천추무덤에서도 출토되었다. 그리고 기단의 두번째 단 동쪽끝에서는 우에서 밀려내려온 청회색의 기와조각들이 많이 알려졌다.

석천동 4호무덤은 구조와 외형 및 출토유물로 보아 이 무덤의 꼭대기에는 어떤 시설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장군무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삼국시기 무덤의 무덤외부시설들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무덤전체의 크기와 높이에 맞게 조형적으로 어울리게 설계되고 건설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삼국시기 무덤의 주위에 달린무덤, 제단, 툇 및 담장, 못, 배수시설 등이 정연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 역시 당시 무덤건축의 우수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삼국시기의 무덤외부시설들은 당시 우리 민족국가들의 강대한 위용과 우리 선조들의 높은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우수한 문화적재보이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이라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실마리어 장군무덤, 배수시설